

# “전남 어업, 속 빈 강정”

전남연구원 '연근해어업 구조개선 효율적 방안' 이슈리포트

어선 수 전체 42%차지 전국 최다...어획량 17%로 부산·경남에 밀려  
“어선 현대화·총허용어획량제도 확대 등 연근해어업 구조 개선 시급”

기후변화로 인한 수온 상승과 어획량 감소 등에 따라 수산 자원 보호책 마련이 시급한 가운데 전남 연근해 어업의 체질을 전반적으로 개선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수산 자원 평가 분석, 어선 감축 및 현대화, 총허용 어획량 제도(Total Allowable Catch, TAC) 적용 확대 등을 고민해야 한다는 것이다. 특히 전남은 어선 수가 전국의 절반에 육박하고 있으나 생산량은 부산·경남에 크게 밀리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전남연구원은 12일 '전남 연근해어업 구조개선을 위한 효율적 지원 방안'을 주제로 한 'JNI 이슈리포트'에서 전남의 어업 특성을 반영한 첨단기술 도입, TAC 제도의 적용 확대방안 마련 등 수산 자원 보호 등 어업 경쟁력 확보를 위한 추진 과제를 제안했다.

2023년 기준 연근해 어업생산량은 총 95.6만t으로 전년 생산량(88.9만t)에 비해 7.6%, 생산금액은 총 4조3673억 원으로 전년 생산금액(4조430억 원)에 비해 8.0% 증가했다.

생산량은 부산(23.6%), 경남(20.1%), 전남(17.6%) 등의 순이며 생산금액은 전남(21.6%), 경남(15.5%), 부산(12.7%)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그러나 전남은 생산량은 적으나 고부

가치 어종으로 다소 소득이 높은 특징을 갖는 것으로 집계됐다.

전남의 연근해 어선은 2만7010척으로 전국(6만4385척)의 42%에 달하며 경남(1만3589척), 부산(3342척)보다 월등한 어선 수에도 불구하고 생산량이 낮은 것은 어선이 노후하고 작기 때문이라는 게 박은옥 책임연구원의 지적이다. 어선의 현대화와 첨단기술의 적용이 절실하다는 분석이다.

이와 함께 연근해 수산 자원의 보호, 지속가능한 어업을 위해 TAC의 확대 적용도 주장했다. 현재 어종별로는 고등어, 오징어, 참조기, 갈치 등의 순으로 총허용 어획량이 많으며, 2023년 기준 15개 어종, 17개 업종에 대해 적용·관리 중이다.

박은옥 책임연구원은 “어선 감축을 위한 선정 절차 및 지원금 산정방법 등 절차를 단순화하고, 감축 어업인에 대한 폐업지원금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가면서 감축에 따른 어업인의 부담을 경감하며, 지속가능한 어업구조로 원활하게 전환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이어 “전남의 지속가능한 수산자원 보전을 위해 수산정책에 대한 어업인들의 신뢰성 확보와 적극적인 참여가 매우 중요하다”고 말했다.

/윤현석 기자 chadol@kwangju.co.kr



도심 숲 속 '건강 길' 걸어요

맨발걷기를 통해 자연과 하나되고 건강을 유지하는 '제1회 도심맨발축제'가 지난 11일 오전 광주 서구 금당산 맨발로 일대에서 열렸다. 축제에 참가한 시민들이 녹음 짙은 산책로를 거닐고 있다. /김진수 기자 jeans@kwangju.co.kr

## 제2기 광주자치경찰위원장에 안진 교수

여성·인권 전문가 등 7명 구성...전준호 전 서부서장 상임위원 선출

광주자치경찰위원회가 안진 전남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를 위원장으로 하는 '제2기 광주자치경찰위원회' 구성을 마치고 공식 출범했다.

강기정 광주시장은 지난 10일 시청 비즈니스룸에서 제2기 광주자치경찰위원회 위원들에게 임명장을 수여했다.

제2기 위원장에는 안진 전남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임명됐다. 안 위원장은 광주시 인권증진시민위원장, 전남대 인권센터장 등을 역임했으며, 법률·행정·인권 분야의 폭넓은 경험을 살려 주민 맞춤형 자치경찰제 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제2기 위원은 광주시의회 추천 양성진 전 광주경찰청 제1부장과 객민섭 변호사, 국가경찰위원회 추천 심형섭 변호사, 광주시교육감 추천 안병갑 전 목

포경찰서장, 위원추천위원회 추천 전준호 전 광주시 부경찰서장과 조선희 변호사 등 7명으로 구성됐다. 위원은 학계·법조계·전직 경찰 등 분야별 전문가들로 선정했으며, 여성 위원과 인권 전문가를 포함해 구성했다.

제2기 광주자치경찰위원회는 이날 제1차 회의를 열고 전준호 전 광주시부경찰서장을 상임위원으로 선출, 의결했다. 상임위원은 지방공무원 채용 절차를 거쳐 정무직 3급상당 직위로 임용될 예정이다. 위원 임기는 2024년 5월 10일부터 2027년 5월 9일까지 3년 간이다.

/박진표 기자 lucky@kwangju.co.kr

## 광주시, 전문예술극장 건립 속도

전문가 자문위, 내일 첫 회의...부지 등 연말까지 마스터플랜 수립

광주시가 문화예술 분야 숙원인 전문 예술극장 건립에 속도를 내고 있다. 연말까지 건립부지 선정 등 마스터플랜을 수립할 예정이다.

12일 광주시에 따르면 전문예술극장 건립 자문위원회는 14일 시청 행복 회의실에서 첫 회의를 열고 사업 추진 방안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위원회는 행정 2명, 문화예술 11명, 건축 1명, 도시계획 1명, 조경 1명 등 각계 16명으로 구성됐다. 타당성 조사와 기본계획 수립 기간에 대상지 선정, 공연 장르, 운영 방식 등 전반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고 공론화 등도 추진한다.

전문예술극장은 오페라, 뮤지컬 등 전문 장르 콘텐츠를 수용하는 공간으로 광주시는 호남권을 아우

르는 규모 시설을 구상하고 있다.

광주는 물론 호남 공연장 대부분이 다목적이어서 국내외 유명 전문 공연을 유치하는데 한계를 드러내고 있기 때문이다.

광주시는 전문 예술극장 건립을 아시아 문화중심도시 조성사업 연차별 실시계획 중 2022년 사업계획에 반영하고 지난해 12월 타당성 조사와 기본계획 수립 용역에 착수했다.

올해에는 지난 3월 5개 자치구로부터 희망 부지를 신청받았으며 후보지, 총사업비, 규모 등을 담은 마스터플랜을 연말까지 마련해 내년 초 중앙 부지에 예비 타당성 조사를 신청할 계획이다.

/박진표 기자 lucky@kwangju.co.kr

## 전남 지역아동센터 종사자 호봉제 전환

도, 7월 시행위해 추경안 상정...아동 돌봄 서비스 향상 기대

전남도가 지역아동센터 종사자 처우개선을 위해 임금체계를 정액제에서 호봉제로 전환한다.

전남도는 지역아동센터가 아동복지시설로 아동복지법에 포함되도록 법제화된지 올해로 20년이 됐고, 그동안 종사자들의 헌신과 노력을 인정해 호봉제를 전격 도입하기로 했다. 제1회 추경에 인건비 추가분을 예산에 반영하고, 7월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전남도에 따르면 그동안 현장에서 오랜 경력을 갖고 있는 종사자와 신입 종사자의 임금이 같은 근무 경력 등을 반영한 호봉제 도입 요구가 수년간 지속됐다. 하지만 지역아동센터 종사자가 347개소, 850명으로 전국에서 경기, 서울에 이어 세 번째로 많은 규모여서 전남도 및 시군의 재정 여건상 도입

에 어려움이 많았다.

전남도는 예로사항 해소를 위해 종사자 단체와 수 차례 실무회의 등을 거쳐 현장 의견을 반영한 종사자 인건비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 종사자들과의 대화를 통한 이번 호봉제 도입으로 현장의 수용성을 높이고, 종사자 처우개선을 통해 지역아동센터 이용 아동에게 보다 나은 돌봄과 안전을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김영록 전남지사는 “지역아동센터는 아이들에게 안전하고 즐거운 학습공간이자 따뜻한 보금자리 역할을 하고 있다”며 “종사자 처우를 개선하고, 아이들이 더 나은 여건에서 생활하도록 더욱 힘쓰겠다”고 말했다.

/윤현석 기자 chadol@kwangju.co.kr

## 전남도, 사이버 공격 방어 디도스 대응 훈련

견고한 방어 체계 구축

전남도가 최근 사이버 위협으로부터 공공정보를 보호하고 대응력을 키우기 위해 디도스(DDoS) 공격 대응 훈련을 실시했다. 디도스는 대상 시스템에 과도한 트래픽을 몰아넣어 정상 작동을 마비시키는 사이버 공격이다.

훈련은 국가 핵심 행정망의 접속 장애와 해킹 사태에 대비해 비상 대응 능력과 시스템 복원력을 높이기 위해 이뤄졌다.

실제 공격 상황을 재연, 공격팀이 전술적 공격 장비를 이용해 대량의 트래픽을 발생시키고, 대응팀은 고도의 보안장비를 통해 이를 탐지해 차단하는 치밀한 전략으로 진행됐다.

전남의 대표적 웹사이트를 대상으로 한 이번 훈련은 각 분야 담당자가 직접 참여해 어느 때보다 큰 규모와 역량을 발휘했다.

전남도는 이번 훈련을 통해 드러난 취약점을 신속하게 보완하고, 사이버위기 대응 매뉴얼에 따른 절차를 철저히 점검하며 더욱 견고한 사이버 방어 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장현범 전남도 기획조정실장은 “현재 모든 국가 및 공공기관에는 사이버 위협 경보가 발령된 상태로, 앞으로 해킹 메일 대응, 기반 시설 보호 훈련을 철저히 하고, 모든 직원을 대상으로 정보보안 교육을 실시해 위기 대응 역량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윤현석 기자 chadol@kwangju.co.kr

주 관 **장성군축제위원회**  
주 최 **장성군 Jangseong**

**제23회 장성꽃길축제**

**장성 황룡강변 2024. 5. 24.(금) ~ 5. 26.(일)**

**장성 뮤직페스티벌 5. 25.(토)**  
나들이 5. 27.(월) ~ 6. 2.(일)